어린이 책꽂이

▲꼬마 모모-루의 집을 찾아주세요=

때론 엉뚱하지만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있는 꼬마 모모의 이야기 시리즈. 곰인형 루에게 심술을 부린 모모는 막상 곰인형이 집을 나가자 보고 싶은 마음에 루를 찾아 떠난다. 결국 루를 찾게 된 모모는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

〈은하수 미디어·5천원〉

▲꼬마비행기 플랩=비행기와 새를 의인화하여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정의 소중함을 그린 그림책이다. 화려한 빛깔과 역동적인 구도가 돋보이는 이 책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어린이 작가정신·8천원〉

▲만화로 보는 대조영=잊혀진 우리의 영웅, 발해의 대조영의 삶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대륙의 기상을 일깨우는 만화책.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혼란에 빠진 한반도 이북과 동북아 대륙의 여러 민족을 통합해 제국을 건설한 대조영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가나출판사·9천원〉

▲논술·명작 시리즈-오만과 편견=초등학생들을 위한 논술·명작 시리즈로 영국작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명작 살펴보기, 명작 읽기, 깊어지는 논술, 논술 워크북 등 4개의 장으로 나눠 작품의 이해를 돕고 있다.

〈아이세움·7천500원〉

▲나롱이와 함께 하는 초등학생 교양과학=애니메이션 최고의 스타인 나롱이가 어린이들의 과학궁금증 해결사로 등장해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준다. '우유는 왜 흰색일까요', '말은 왜 서서 잠을 잘까요', 'UFO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등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접하는 다양한 궁금증이 소개돼 있다. 〈아롬주니어·8천원〉

살인사건 통해 본 조선시대 사회像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 이수광 지음

성경으로 본 인류 최초의 범죄는 아담의 큰 아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다. 이처럼 살인은 인류와 함께 했다고 해도 좋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다. 엄격한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을 어떻게 다뤘을까. 미국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 속의 요원들처럼 과학적인 장비도 없었을텐데 범인을 밝혀내는 게 가능했을까.

추리소설가 이수광의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은 조선시대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재구성, 사건의 발생에서 검거에 이르기까지를 엮어놓은 책이다. 저자는 '좌포도청등록', '우포도청등록', '조선왕조실록', '흠흠신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소설의 형식을 빌려 읽는 재미를 더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조선시대에도 과학수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특히 저자가 많은 부분 참조한 조선시대 수사 지침서 '무원록(無冤錄)'과 형사사건 기록 '심리록(審理錄)'에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했던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노력이 잘 나타난다.

'무원록'에는 시체 검안 및 초동수사의 중요성과 올바른 검안 방법 등이 자세히 기술돼 있다. 영·정조 시대의 형사사건 판례집인 '심리록'은 무원록의 내용에 따라 시체를 다루고 사건을 풀어갔던 실제 사례들이 기록돼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현대 경찰에게도 격언처럼 사용되는 '시체는 말한다'는 당시에도 통용됐다.

책은 권력층 양반이 저지른 살인, 여성의 살인,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살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해결된 살인 등 당시 조선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1603년(선조 36년) 현재의 부총리급 관리인 유

사체 검안에 과학적 수사방법 동원

권력 양반층·엽기적인 살인 등 다뤄

희서가 도적떼에 의해 살해돼 조정이 발칵 뒤집힌다. 포도대장 변양걸의 수사 결과 범인은 유희서의 첩과 간통한 선조의 아들 임해군이 보낸 자들이었다.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된 4명이 옥 안에서 다시 살해당한다. 권력자들의 치정에 얽힌 희대의 살인사건인 것이다. 하지만 선조의 비호 아래 범죄를 끝까지 부정하던 임해군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변양걸이 파직당하는 것으로 사건의 막이 내린다.

조선시대에도 사채가 횡행했고, 이로 인한 살인사건이 빈번했음을 보여주는 예도 있다.

'무원록'을 바탕으로 조선 말기에 편역된 '증수무원록언해'에 나오는 인체도 앙면(앞면).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검시를 통해 시장(屍狀)을 작성했다.

1677년(숙종 3년) 한양의 성 밖에는 목을 맨 채 나무에 매달린 여인의 시체가 발견된다. 검시관의 사체 검안 결과, 여인의 목에는 액흔(縊痕·목을 맬 때 남는 상처)이 없었고, 줄이 감긴 나무껍질도 벗겨지지 않았다. 몸에는 핏자국과 멍이 엉켜 있었다. 누군가 먼저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하려 한 것이다. 포도청은 숨진 여인의 남편이 사채를 빌려쓴 뒤 채무자에게 끌려갔다 도망치자 채무자들이 여인을 잡아다 때려 죽였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 밖에 조카와 간음하던 여인이 이를 알아차린 자신의 며느리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해 완전범죄를 노리다 3년 만에 해결되는 살인사건, 노비가 주인을 살해해 암매장한 사건,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해적 사건 등을 통해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안겨준다.

〈다산초당·1만3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읽기

오주석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삶에 대한 '물음의 잔치'

진도 운림산방의 배롱나무를 바라보며 운 적이 있다. 운림산방은 소치(小癡·허련·1808~1893)가 오랜 방랑생활을 청산하고 말년에 안거한 곳이다. 나는 안거하기에는 자격미달이었고 실직에 대한 예감과 머잖아 닥칠 '마흔'의 무게로 하루하루가 버거웠다. 조바심만이 유일한 벗이었던 시절, 나는 소치의 '선면산수도'(운림산방의 옛 모습이 그려져 있다) 속의 운림산방과 눈앞의 풍경을 번갈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던가.

나이 서른 이전에는 배롱나무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서른이 넘어서야 그 나무의 몸통에 가만 손을 대보게 되었는데, 그건 삶의 저 편에 대한 조심스러운 노크랄까. 그때 나무의 응답은 항상 삶에 대한 '경외'보다는 '결핍', '불안'에 가까운 흔들림이었다. 내일 모레면 마흔이 내 모가지에 새끼를 동여매고 죽을 때까지 나를 친친 끌고 갈 것 같은 예감에 몸서리치곤 할 때였다.

그리고 나는 마흔을 넘겼다. 세월은 언제나 훌쩍 간다. 올해 마흔 셋인 나는 여전히 흰 버짐이 피고 많은 얼룩을 간직한 채 빼빼 마른 배롱나무 가지에 노크를 한다. 의문이란 여전한 생의 집착에 다름 아니지만, 더 이상 불안하지는 않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이란 늘 더 많은 가지를 치며 하늘거리는 의문의 잔치 같은 것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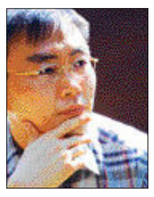
오주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1,2' (솔 펴냄)는 우리 선인들이 그린 그림에 대한 '의문의 잔치'와도 같다. 그는 해박하나 그 문체는 단아하며, 쉽다. 글을 써본 사람은 그 어려움을 금세 안다. 그는 그만큼 노크하였고 그만큼 공들여 썼으며 그만큼 정확히 안다.

그는 책의 머리글에서, "그림을 아는 사람은 설명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 그림을 즐기는 사람은 일상 생활 속에서도 거기에 그려지는 대상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고 했다. 유심히 살펴본다는 것은 끊임없이 묻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김명국의 '달마상', 윤두서의 '자화상', 김정희의 '세한도' 등 17편의 그림에 대한 그의 글은, 단순한 그림 감상법을 넘어서서 그림 속 주인공들과 화가의 시대, 생활, 철학, 생애를 아우르며 궁극적으로 삶에 대한 '의문의 잔치'를 벌이는 데까지 나아간다.

오주석은 마흔 아홉 해 동안 이승에 적을 두었다.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첫 번째 권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 두 번째 권은 그의 사후 1년이 되던 지난 2월에 나왔다. 미완의 유고인 셈이다. 출간에 부치는 글에서 미술사학자 강우방은 "옛 그림의 화의(畵意)를 등불처럼 환하게 밝히는 책"이라고 썼다.

이 책을 읽은 독자는 박물관이나 전시실의 우리 그림 앞에서 무엇을 감상할 줄 몰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도 된다. 물론 그 변화는 그림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시실 밖의 온갖 사물들, 그리고 의문뿐인 삶의 저 편에까지 이어질 것이다. 삶이란 '왜?'냐고 물을 수 있는 자유에 다름 아니다.



송 광 룡

〈시인·'문학들' 발행인〉

'반 고흐 전설' 만든 모티브는 무엇?

반 고흐 효과 나탈리 에니히 지음

광기에 사로잡힌 예술가, 스스로 잘라 버린 귀, 설흔 일곱살에 감행한 권총 자살, 이해받지 못한 천재, 작품의 기록적인 판매 금액···.

'해바라기'의 작가 빈센트 반 고흐는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미술인 중의 한명일 것이다. 살아서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단 한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던 고흐는 어떻게 예술계의 전설이 되었을까.

사회학자 나탈리 에니히가 쓴 '반 고흐 효과-무명 화가에서 문화 아이콘으로'는 그의 사후 100년 동안 어떤 모티프가 반 고흐 전설을 구성했는지, 그 과정에서 과장과 왜곡은 없었는 지 등을 통해 사회가 특정한 한 인물을 문화적 아이콘으로 변화시키는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있다.

'반고흐 대 빈센트' '광기와 희생' '돈과 관람, 참여로 이루어진 보상' 등으로 구성돼 있는 책은 사회학·인류학 등을 넘나들다 보니 다소 어려운 편이다. 〈아트북스·1만5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불꽃같이 살다 간 '인간 최승희'

불꽃 최승희 자서전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의 육필 원고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1911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난 최승희는 일본으로 건너가 춤을 배우고,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가 안막과 결혼해 월북한 뒤 일본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등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1969년 북한 당국에 의해 숙청당하면서 '불꽃같은' 삶을 마감했다.

'불꽃' 1부는 최승희의 수필 9편과 친 오빠 최승일과 나눴던 편지 3편 등이 실려 있고, 2부에는 무용가, 언론인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최승희에 대한 단상을 적었다. 무엇보다 직접 쓴 글을 통해 어린 시절이나 가족사 등 '인간 최승희'를 만날 수 있다. 〈자음과모음·1만1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정우부동산랜드
☎(代)671-0923 핸 011-607-2213
(진월동 대성여고입구 동성고후문사이)

약산관산리(유자과수원 1500평)
·완도(고금도 옆) 황토밭 등 4동건물 1억3천만원
남구 승촌가든식당 257평 매도
·지석강 부근(주유소부지적합) 부지580, 건평70평:3억5천만원
나주 도포 성산리 배밭 4700평
·신북지나 영암간 도로주변(신고 13년생 800주 식재) 평당8만원
나주 운곡농공단지 1030평
·건물 500평 융자 1억5천(일반공업지역) 4억3천만원
장흥 유치 대천리(전·답·임야)
·26000평(보림사위 탐진댐상류)매도가3억5천
진월동APT입구 상가부지 380평
·10M도로접 평당270만원 유치원,종교시설 적합
나주 남평 서산리(드들강유원지)
·관리지역 1250평 도로접 평당 20만원
나주공단 금곡 생녹지 458평
·소재지 입구 포장도로접(매립필)평당 15만원
나주 평산리 배밭 1850평
·관리지역 도로접(신고18년 150주) 평당 24만원
그린벨트 임야 14만 2000평 매도
·담양 남면 정곡리(고로쇠나무 식재, 희귀성바위분포) 평당3500원
양과동 G/B 논597평 매도
·시멘트도로접 평당 30만원 복송포도밭 840평 평당33만원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한글주소: 정우부동산 을 클릭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
☎(代)962-7100 (핸)010-4325-1323
(신창지구 신가중학교 옆)

장성지역
▶공장부지,물류창고 전문중개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평수대로 가능
※ 지면관계상 물건 올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공장매도
장성군 삼계면 4차선접
◉대지-약3000평
◉건물1-철골조 2층 437평
◉건물2-철골조 248평
매매가-12억(절충가능)

* 장성군 황룡, 동화, 공장부지 매물 급 구함.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代)522-9422, 핸011-643-3210
(동림2지구 앞 하남로 대로변)

동림2지구 임대
병·의원 학원,상가
최고상권 최적조건
3면도로코너
2층~5층 70평, 135평
축 입점확정 1층 광주은행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핸 010-9455-2200 ☎ 674-1500
(양과동 드리마 세트장 옆)

비전있는 남구, 지금이 투자의 최적기입니다
남구 이장동 1종 주거지역 급매매
·주거용지 380평 그린벨트 300평 4차선 도로접 주거 평당100만 그린벨트 30만 주유소 공장 창고 전원주택 적합
남구 양과동 답 600평 급매매
·(야산및 답) 평당17만원 도로접 주말농장 최고지역
남구 이장동 임야 2800평 급매매
·마을접 도로있음, 대말, 밤나무, 소나무(식재) 평지 평당가:15만원 주말농장 최고지역
남구 이장동 700평 매매
·도로접 현재답으로 사용중 평당가: 17만원 투자적합
남구 지석동 1종 주거지역매매
·답600평 4차선 도로접 당100만원 전원주택, 주유소, 공장적합
남구 양과동 전 400평 급매매
·도로없음 평당가 10만원 투자 유망지역 주말농장적합
남구 회장동 1종 주거지역 매매
·대지 800평 평당 25만원 도로접 투자유망지역 전원주택 실버타운 병원 별장부지 최고
광주 남구 대지동 주택매매
·210평 평당 45만원 승용차진입가능
남구 양과동 대지 급매매
·노인병원부지:대지800평 별장 전시장 공장 창고부지 적합 4차선도로접 75만원
서구 용두동 임야및 목장부지급매매
·10,000평 평당6만원 도로접 투자 유망지역

신도시중개사
☎(代) 061-833-6669
핸 010-8004-6669

섬 고흥 -여수 연육교 앞 아름다운 섬
▪3500평, 별장.전원주택지로 최적/당5만원

우주센타
▪고흥. 맑은 계곡물흐르는 곳 630평 펜션.가든.전원주택.부지로최적(그림같음)당3만원

우주센타
▪고흥 바다와 접한땅 300평 500평/평당 3만원(전원주택최적)우주발사시.조망권좋은 곳

우주센타
▪고흥 바다가 훤하게 앞으로 보이는 땅. 농목장.과수원 최적 (임야 6천평) 평당5천원

섬
▪완전개인독섬 6천평.완도군 금일읍. 마을앞야산/ 전기.수도 가능 (건축가능) 당5만원(교환도 가능함) 상가.아파트

국민공인중개사
핸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맞은편 2층)

건 물
◉4억 호화주택
대지230평 건평60평 음식점 유아원 적합
◉북구첨앞 3억 2천 호화주택
대지 150평 건평80평 식당가능 8×6m 코너
◉7억9천 말바우 상가 매매
20×8m코너 보증9천 월500만원
◉용봉동 7억5천 신축고시원 급매
대285평, 건1,150평 룸65개 월세1,250만원 가능
◉13억9천 빌딩 20×10m 코너
전대 후문 대110평 건320평 보증3천 월900만
◉17억1층 점포 12칸 빌딩부지
보증금 1억5천 월750만원포함 아파트7,000세대 상권
◉22억 상업지역 빌딩
대150평 건800평 보증금4억5천 월세1,400만원 포함
◉33억 상업지역 빌딩
대175 건540평 보증금3억 월세2,600만원
◉49억 빌딩 보증금 17억 월세2,700만원
◉65억 상업지역 빌딩 대370 건1,650평
◉125억 빌딩 급매 대675평 건6,000평
◉9억 8천 빌딩
대100평 건140평 보증금 2억8천 월세500만원

주유소 전문중개
◉시내 8억주유소 급매
대280 건평 약60평 보5천 월440만원포함
◉10억 주유소
평1,200평 가든포함
◉11억5천 시외 주유소
기사식당 카센타 포함 2000평 장사잘됨
◉13억 시외 주유소 급매
대200평 일매출 800만-900만원
◉17억 시외 주유소
대1,800평 휴게소 포함 건200평 하루 매출 1,200만원~1,300만원

병원부지 전문중개
◉550평 평당 650만원
◉360평 평당 850만원
◉140평 평당 900만원
◉270평 평당650만원 APT 7000세대 상권
◉9억 전원카페 대700 건160 교환가능

10억8천 시외운전학원 급매
◉잡종지 3000평 현재 도경찰청지정 운전학원 운영중 융자 3억5천 포함 보증금 1억 월300만원 가능

땅
◉문흥동 지연녹지 850평
평당 135만원 30m 도로접
◉쌍촌동 현대아파트부근 240평
20m도로접 8억 병원학원부지 적합
◉두암동 120평 주거지역
평당 140만원 창고 교회 부지
◉창고부지 200평
각화동 평당 145만원
◉곡성 섬진강변 5000평
별장, 연수원부지 관리지역 평당 7만원
◉담양 임야
15만평 평당 1만원
◉관리지역 임야 7000평
담양 평당3만7천원 진입로 있음 경사도 15°
◉오피스텔부지 300평
평당190만원 전대후문에서 6~7분 도보
◉과수원 묘지가능 그린벨트 임야
1,800평 남향 경사도 15도미만 진입로 있음 삼성홈플러스에서 10분거리 평당4만원
◉23억 종교시설 연수원 실버타운부지
12만평 건물 500평, 태남 50만평
◉자연녹지(골프연습장적합)3000평 급매
36m도로접 차고지 택시회사 창고(주차장) 적합 공시1,200만원
◉장성 5만5천×2만원
◉곡성농장 20000평 6억5천

창고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대1000평 창고5동 포함 7억5천 보3500만 월세450만

A3000세대 정문 10억 빌딩 급매
대90 건280
보증금 1억4,000 월 700만원

공시지가 이하 급매땅
▪오치동 140평
▪오치동 160평
▪두암동 120평
▪금남로 130평 공시지가 13억 매매가 7억

한 일 지 도 (주)
☎(代)529-1409, 핸 010-2466-1409
(지산동 법원앞)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 체크된 부분은 타사와 비교 환영

이번에 새로 나올 광주시 책은
① 광주시 전지역 그린벨트 2차 해제 198곳 수록
② 해제된곳 안에 전지역 계획선 수록
③ 해제된곳 안에 자연녹지, 공원, 주차장 용지 수록
★ 남구 효천 역세권 1, 2지구 바운다리 수록
★ 동구 용산동 택지개발 경계선 수록
★ 동구 월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내남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선교동 그린벨트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 변경
★ 동구 선교동 벤처타운 부지 수록
★ 광주 무안간 고속국도 자세히 수록, 서광산 I·C수록
★ 광주시내 전지역 APT 입구, 세대수, 평형 수록
★ 하남2지구내 APT 배치도 수록
★ 수완지구 전지역 APT 배치도 수록
★ 남구 지석동 빛고을 APT 배치도 수록
★ 광산구 산정동 골든뜨레빌 APT 배치도 수록
★ 백운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동구 지산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공 APT 배치도 수록
★ 광산구, 옥동, 월전동, 평동공단 추가 수록
이외, 지적분할 및 신구 APT, 용도지역, 계획선 등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표기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광주·전남 전지역
실사출력으로 지적도 부분별 맞춤제작 합니다 (확대·축소가능)

<현재 판매중인 지번도 목록>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광주광역시, 목포시, 나주시,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고흥군, 함평군, 영광군

한 일 지 도(주) <운암주유소뒤>
☎ 527-6310, 핸 011-9433-6310